

남원시, 주거·의료 통합돌봄 가동

도시락 배달·병원 동행 서비스 등
내년 6억 투입…주거 개선 추진도

남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남원시는 'THE 가까이 돌봄, 함께 피어나는 남
원'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에
산을 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의
밀반찬과 식재료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형태의 식
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식사 단가는 1
식당 9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
금 수급자는 20%,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
으로 운영된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자
택에서 출발해 병원진료, 검사, 약처방, 귀가까지
병원이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1일 4시간 5000원이며, 기
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이용이 가능
하다.

또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의 가정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개선사업을 추
진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소득 수준과 주택의



남원시가 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신체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원시 제공〉

노후 상태를 고려해 우선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
인당 1회(생애 최대 100만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신체기능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수술 직후 또는 퇴원환자, 마비나 퇴행성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대상자
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은 1회당 40분에 5만원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은 면제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의 본인부담률이 있고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권혁정 남원시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비스 내용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영농형 태양광 단지, 주민 뜻 반영”

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 정책포럼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발전 전략
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고,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
책 논의의장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최근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주민 참
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포럼이 지자체 최초로 주도해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로 주민 참여를 중심에 둔 신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석호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원을 좌장으로

▲임철현 교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신재
생에너지단지 사업 비전 및 RE100 산업단지 연계
방안' ▲순병민 교수(충남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수익성과 정책·이해관계 분석' ▲남재우
사무총장(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의 '영농형 태
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주
제 발표가 이어졌다.

임철현 교수는 RE100 산업단지 연계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순병민 교수는 정책 동

향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농업인·정부의 우선 고
려사항을 설명했다. 남재우 사무총장은 설계 기준
과 함께 지자체·주민의 역할,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김근호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원 ▲양준오 새
만금개발공사 쳐장이 참여해 고창군에 적합한 사
업 추진 방식,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제도 개
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주민 설명회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현
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
으로도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의회 이만재 부의장, 의정정책 최우수상

아이돌봄 지원 조례, 양육 부담 완화·돌봄 공백 해소 기여 평가

정읍시의회 이만재(사진) 부의장이 여의도정책
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부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
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

이는 입법 활동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주요 기
준으로 반영됐다.

특히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공공 아이돌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
피고자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
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일상에 지역상품권 정착 성과…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
보했다.

이번 선정은 군민의 일상 소비에 지역사랑상품
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고창군은 올해 초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20% 특
별 할인 정책을 시행해 소비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상품권 사용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상품권 발행 규모는 870억원에 달했
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
용 확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단순
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민생 경제 회복 효과를 높이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권 활성화
를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연지시장 옛 명성 찾기 나섰다



정비 계획 용역 착수

정읍시가 연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비 계획 용
역에 착수했다.

정읍시는 최근 이하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용
역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지시장
정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전통의 삼고을시장 전체 매출까지 뛰어넘으며 시
장의 매출상승을 이끌었다.

낙후된 시설과 유동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결
정적인 타격은 민선 2기 당시 고주전 이전이었다.

고주전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기능은 급격히 무
너졌고 반경 수백m 인근 상권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만큼 행정 판단 실수로 회자되는 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해
결책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효율적이면
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핵심 과제로 ▲기초
현황 조사 및 상권 정밀 분석 ▲개발 방식별 절차
및 장단점 비교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
상인·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비계획안 수립
등이 제시됐다.

덕분에 정읍의 건고주는 전국에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지역의 특산물로 인정받았고 한때 100년
전통의 삼고을시장 전체 매출까지 뛰어넘으며 시
장의 매출상승을 이끌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평생학습관 ‘촘촘학습 시즌3’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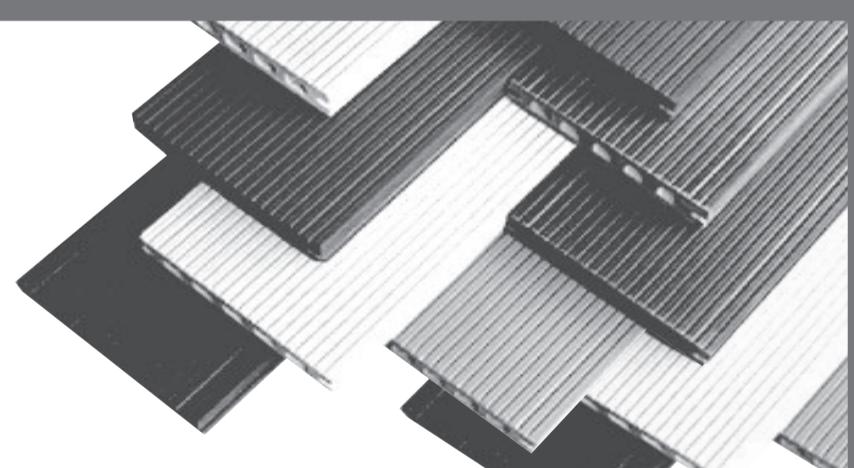
한 주제를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촘촘학습은 단순
한 보완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된 평생학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학
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어
질 수 있도록 촘촘한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겠
다"라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 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 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